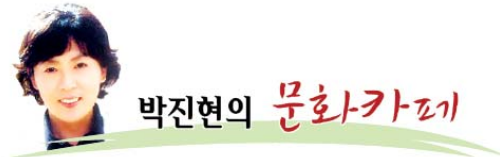


문화

술한 편견에도 지조 지킨 전라도 인물 106인



박현연의 문화카카레

김정수씨 '전라도 사람들' 6권 출간

15년 간 조사·해석 토대로 쓴 노작

전라도 사람이 쓴 전라도 사람 이야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1300년의 세월을 넘나들며 역사 속에 묻혔던 비범한 전라도 사람의 삶과 업적을 총망라한 역사서가 나왔다.

6권으로 구성된 '전라도 사람들'(도서출판 장문산 펴냄)은 5천 년 한민족의 역사 속 분류에서 벗어나 소외되어 온 전라도 출신 인물 총 106인의 삶을 평전형식으로 서술한 책이다.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역작을 완성한 주인공은 바로 장성 출신 김정수(79·사진)씨. 초·중·고교에서 47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저자는 1995년 광주 금호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 후 장장 15년에 걸쳐 치밀한 자료조사와 고전 해석을 토대로 방대한 노작(勞作)을 완성했다.

우리 사회 일각에 여전히 존재하는 '전

라도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의 뿌리를 찾고 이런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저술을 시작했다. 저자는 "선인들 특히 전라도 사람들의 지조 끈은 모습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큰 감명을 준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마음으로 귀감을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책은 1, 2부로 나눠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고려시대 편(1~3권)은 영암 출신 도선국사를 필두로 신승겸, 유방현, 임계, 최균, 조염, 윤화중 등 전라도 출신 문인, 학자, 정치가, 명장(名將), 의인(義人), 열사(烈士) 등 총 98인의 삶을 치밀한 사료에 기초해 발굴해 내놓고 있다.

2부 조선시대 편에서는 '표해록'이라는 걸출한 기행문을 남긴 최부과 대문호 박



상의 삶(4권), 죽음을 무릅쓰고 울골은 선비정신의 정수(精髓)를 보여주었던 이희맹, 최사두, 양평손, 안처순, 안서순 등 5인의 생애(5권)를 서술했고 끝으로 6권에서는 전라도가 배출한 거유(巨儒) 하서(河西) 김인후(1510~1560)선생의 생애와 학문세계를 한 권 분량으로 유장하게 펼쳐보인다.

퇴직 후 과천 인근에 따로 거처를 마련하고 저술 작업에 착수했던 저자는 "국립



중앙도서관, 국회사서관, 규장각 등지를 터전 삼아 1천 년 전 우리 역사의 숲 속을 살아가 탐색했다. 15년간의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보람됐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이 작업을 위해 동양고전과 한문 공부도 새롭게 시작했다며 "애초엔 노년의 소일거리로 시작했는데 작업을 하던 할수록 용기와 오기가 생겼으며 내 살아생전에 반드시 기본본이라도 정리

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다"고 밝혔다.

팔순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작을 완성한 김씨는 여전히 활기차다. 현재는 임진왜란 이후 전라도 지역 의병의 활약상을 다룬 3부도 준비중에 있으며 "구월말까지 전라도 땅에서 빛나는 삶을 살았던, 그러나 역사 속에 묻힌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발굴해 펼쳐보이겠다"는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번 책 출간과 관련, 지난날 가르침을 받은 금호고등학교 동문을 비롯한 300여 명이 뜻을 모아 선생의 노작 출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정을 나누기도 했다. 출판기념회는 내년 3월 중 열릴 예정이다. 문의 031-913-488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유! 강부자 홍신자 신영옥의 굴욕

지난 2000년 11월 필자는 그해 최대 화제작이었던 연극 '오구'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 정동극장을 찾았다. 공연 3시간 전 분장실은 배우들과 스태프의 공연 준비로 분주했다. 특히 이날 분장실은 대전에서 단체로 원정관람 온 관객들이 많아서인지 고무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연극의 주인공인 탤런트 강부자씨의 표정이 행복해 보였다.

강씨가 행복했던 이유는 '오구'에 대한 관객들의 사랑 때문이었다. 지난 97년부터 '오구'의 노모 역을 맡은 그는 죽음이라는 비극적 소재를 신명나는 환관 굿으로 풀어내 관객들을 울고 웃겼다. 강씨의 레퍼토리로 자리잡은 '오구'는 평균 객석 점유율 97%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서울에 이어 대구, 부산, 마산, 정읍 등의 전국 순회공연도 대박을 터뜨렸다.

분장실에서 만난 강씨에게 "왜 전국순회도시에 광주가 빠졌나"고 하자 "광주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며 살짝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유인즉 흥행실패를 우려해 '오구' 광주공연을 추켜드는 지역기획사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읍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정작 '예향'에서는 '입성'도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세계적인 현대무용가 홍신자씨 역시 광주에서 굴욕을 맛보기는 마찬가지. 지난 2003년 화제의 공연 '웃는 여자'가 '밟혔던' 광주에서 죽을 췌고 말았다. 지난 2001년 뉴욕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뉴욕타임스로부터 "무용언어의 표현영역을 확대한 수작"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홍씨는 전국 순회공연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데다 비엔날레 도시인 만큼 현대무용에 대한 이해가 남다를 것으로 확신했다. 하지만 500석 규모의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은 관객이 절반도 들지 않았다. 마치 '이 빠진 것' 마냥 드문 드문 비어 있는 좌석을 접한 세계적인 춤꾼은 그날 이후 광주에 대한 '인중은 추워'를 갖게 됐다.

그나마 강부자, 홍신자씨는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 신영옥의 굴욕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지난 2007년 1월 신씨의 광주콘서트카타펄칸에 부진으로 공연 하루 전날 전격 취소됐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무대에서 팬들을 열광시켰던 신씨의 티켓이 고작 200여장 팔리는 데 그친 것이다. 신씨의 콘서트 취소 이후 한 때 공연기획사들 사이에서는 광주에 대한 경계감이 내려지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광주의 척박한 공연마케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광주는 그대로인 것 같다.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펴낸 '2009 문예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인구 대비 공연회수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위에 그쳤다. 인구 10만명당 공연회수의 경우 광주는 32.5회로 10위에 머물렀다. 제주(46.7회), 강원(42.4회), 경남(40회) 보다도 낮아 '문화수도'라는 타이틀을 무색케 했다.

공연회수가 적다는 건 광주의 문화황야가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연장을 찾는 애호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 무대에 오르는 '작품'들이 적기 때문이다. 세계에는 더 이상 광주에서 상처를 입는 예술인들이 없으면 좋겠다. '문화도시'의 명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가꾸어 가는 것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지역문화지원사업비 5억 늘어 15억원

심사 방법 대폭 변경... 광주문진위 내년 1월 15일까지 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시(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대폭 손질됐다. 우선 사업비 규모는 기존의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억원이 늘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따로 공모를 진행했던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을 문진기금지원사업과 통합,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사업비는 모두 6억 1천만원으로 지난해 두 사업의 총액인 7억 2천만원보다 1억 1천만원이 줄었다. 대

신 올해부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5억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2억)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며 시도기획지원사업(2억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심사방법도 대폭 개선, 올해부터 체점제를 도입하고 심사위원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수도 3~5명으로 7명으로 늘렸으며 기존 선정단체의 평가 결과도 점수로 환산해 반영한다.

광주문진위는 우선 '2010년 지역문화예술육성 사업'접수를 오는 2010년 1월

15일까지 받는다. 기존의 일반·집중·신진작가 창작지원 대신 시민문화향수, 전문예술창작, 우수창작 활동, 신진작가창작활동 등 4개분야로 나눠 선정하며 지원금은 1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니 유의할 것.

공연장 상주단체와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5700.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가야금연주단 송년음악회

28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빛고을 무등가야금연주단(단장 서담) 송년음악회가 28일 오후 7시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와 경쾌한 경기 민요 '오봉산 타령'을 들려주며 관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 대목을 가야금 병창으로 선사한다. 또 25원 가야금으로 크리스마스 캐



서담 단장



성심은 교수

물도 들려준다. 고문을 받고 있는 성심은(전남대 교수)씨를 비롯해 황승옥·박주연·정선옥·김경희·김미진·박우연씨 등이 출연한다. 장교 반주는 양신승씨가 맡았으며 대금의 김승호(임방울

국악제 일발부 대상)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제15회 광주미술상' 서양화가 박현수씨

'이중성' 주제 작품 호평

창작 지원금 1천만원



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2007년 귀국한 뒤 서울

진화랑 등지에서 2차례 개인전을 열어 국내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3월 6일 언론에서 평론가들을 대상으로 한 '3040 기대주 10인' 설문

에서 서양화가로는 유일하게 뽑혀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박씨는 "고향 선배들의 따뜻한 정이 묻어 있는 상이기에 더욱 뜻깊고, 광주 미술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정진해 좋은 작품을 남기겠다"면서 "내년 서울에서 전시를 여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 좋은 작품으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원로, 중견 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 / 화 / 안 / 내

영화에이웃이다

메가박스

Table with 3 columns: Rank, Title, and Price. 1. 전우치 (12세) 최고급판, 2. 아바타 (12세), 3. 20세기 소년: 제2장 최후의 희망 (12세) 설록홀츠 (12세), 4. 설록홀츠 (12세), 5. 전우치 (12세), 6. 걸프렌즈 (15세) / 아바타 (12세), 7. 전우치 (12세), 8.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9. 아바타 (12세)

• 예프유 주저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면외국사거리 ♥예매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Table with 3 columns: Rank, Title, and Price. 1. 전우치 (12세), 2. 걸프렌즈 (15세) / 여배우들 (12세) / 모범시민 (15세), 3. 전우치 (12세), 4. 전우치 (12세), 5.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6. 아바타 (12세) / 크리스마스캐롤 (9세), 7. 아바타 (12세) / 설록홀츠 (12세), 8. 2012 (12세) / 뉴문: 트와일라잇2 (12세), 9. 설록홀츠 (12세), 10. 아바타 (12세)

원로사관 영화시영 • 예매: www.joycb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대 이마트 사이) 매달별 (무역화관객만)



1588-7941 상무병원대 옆행 - (1번 or 2번) -> 0번

하미시네마

Table with 3 columns: Rank, Title, and Price. 1. 용길동의 후예 (12세) / 시크릿 (18세), 2. 전우치 (12세), 3. 뉴문: 트와일라잇2 (12세), 4. 모범시민 (15세) / 여배우들 (12세), 5. 전우치 (12세), 6. 2012 (12세), 7. 아바타 (12세), 8. 아바타 (12세), 9. 전우치 (12세), 10. 설록홀츠 (12세)

• 아동용신자 & OK 캐쉬워크드 할인 혜택 • 하이수영점 269-5757 • 하이몰점 262-0925 • 하이골프점 251-5080 • 하이점주점



고려사당 고려광동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대무한 하미스포박스 ☎ 267-7777

씨너스전대

Table with 3 columns: Rank, Title, and Price. 1. 전우치 (12세), 2. 설록홀츠 (12세), 3. 모범시민 (15세) / 아바타 (12세), 4. 시크릿 (18세) / 전우치 (12세), 5.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6. 뉴문: 트와일라잇2 (12세), 7. 아바타 (12세), 8. 아바타 (12세), 9. 전우치 (12세)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용신자 할인혜택 • 세너스극장 사우스(오전9시-오후11시)



색깔있는 영화산업 • www.cinrus.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Table with 3 columns: Rank, Title, and Price. 1. 아바타 (12세), 2. 아바타 (12세), 3. 설록홀츠 (12세), 4. 설록홀츠 (12세), 5. 뉴문: 트와일라잇2 (12세), 6. 난자어쎄신 (18세), 7. 모범시민 (15세)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무서 옆 초년터워주저장)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세무서기점 • www.primuscinema.com/www.jellicinema.co.kr • 용정로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 ♥